

# 디펜딩 챔프 광주대 축구 “올해도 우승 가자”

춘계대학축구연맹전 4강 진출  
가톨릭관동대 1-0으로 꺾어  
대회 2연패 향해 순항  
오늘 동의대와 결승행 격돌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 출전한 광주대 선수들.

<광주대 제공>

춘계대학축구연맹전 디펜딩챔피언 광주대학교가 대회 2연패를 정조준했다.

광주대는 지난 22일 경남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4구장에서 열린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8강전에서 가톨릭관동대를 1-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양팀은 경기 종료 직전까지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혼전을 벌였다.

승리의 여신은 광주대에 미소를 보였다.

광주대는 후반 43분 프리킥 상황에서 가톨릭관동대의 자책골로 얻은 선취점을 지켜내 승부를 결정지었다.

2년 연속 같은 대회 우승을 노리는 광주대는 24일 산양스포츠파크 구장에서 동의대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광주대의 목표는 ‘통영기’ 우승이다. 이 대회는 전국 대학 축구 81개 팀이 참가해 ‘한산

대접기’와 ‘통영기’ 2개 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광주대는 지난해 3월에 열린 ‘제57회 춘계대학 축구연맹전’ 한산대접기 결승에서 제주국제대를 5-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 전국 최강팀으로 우뚝

섰다.

팀장단 5년만인 지난 2013년 제49회 전국춘계 대학축구연맹전 정상에 오르바 있다.

이승원 광주대 축구부 감독은 “4강에서 만나는

동의대가 강한 팀이지만 선수들이 평소 훈련한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김예나 광주에 동계체전 첫 메달 소식

71.75점으로 은메달 수확

광주시선수단이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키 스노보드 종목에서 첫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시체육회는 23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스키 스노보드 여자일반부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김예나(광주스키협회)가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김예나는 71.75점으로 권선우(강원, 85.75점)에게 뒤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애초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경기는 28일 예정이었으나 날씨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해 이날로 앞당겨

진행됐다. 김예나는 컨디션을 회복해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김예나는 지난 2013년 광주로 이적해 제94회(2013), 제95회(2014) 대회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후 제96회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제97회-제100회 대회까지 각각 금, 은, 동,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동계종목 대표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지난 2014소치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국가대표이자 이번 대회 남자일반부에 경남 대표로 출전한 김호준(경남스키협회)과 남매 스노보더로 알려져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스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예나.

<광주스키협회 제공>

# ‘한국 마지막 보루’ 신진서 농심배 바둑 역전우승 시동 미워팅과 재대국서 불계승

한국 바둑의 ‘마지막 보루’ 신진서(22·사진) 9단이 농심배에서 2년 연속 한국 우승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신진서는 23일 성동구 한국기원과 중국 베이징 중국기원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23회 농심신라면배세계바둑 최강전 3라운드 제11국에서 중국의 강호 미워팅(26) 9단에게 214수 만에 불계승했다.

이 대국은 전날 미워팅의 ‘시간패 논란’으로 인한 재대국이었다.

전날 신진서는 초반 불리하게 출발했지만, 중반 이후 맹추격을 펼쳐 형세의 균형을 이뤘다.

크게 앞서다 쫓기게 된 미워팅은 결정적인 위기에서 제대로 착수하지 못해 당초 ‘시간패’를 당할 상황이었지만 한국, 중국, 일본 관계자들이 논의 끝에 재대국에 합의했다.

신진서는 무효 대국이 아쉬운 결과였지만 재대국에서는 초반부터 안정된 반면 운영을 펼쳤다.

중반 접어들어서는 우상귀 전투에서 점수를 얻어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다.

불리해진 미워팅은 중반에서 변화를 꾀했으나 신진서는 우변 흑돌을 잡아 불계승을 끌어냈다.

지난해 농심배에서 막판 5연승으로 한국 우승을 거머쥔 신진서는 올해도 다시 한번 역전 우승을 향해 첫 관문을 통과했다.

24일 열리는 제12국에서 신진서의 상대는 일본 대표인 위정차 8단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 시네루→회전, 우라마시→되돌리기 PBA, 바른 당구 용어 알리기 나섰다

방송 중계 등 적극 권장키로

‘다마-당구공, 시네루→회전, 오시→밀어 치기, 우라마시→되돌리기...’

정체불명의 외래어와 일본어 잔재투성이었던 당구 용어가 바른 우리말로 탈바꿈한다.

프로당구협회(PBA)는 23일 ‘PBA 당구 용어 2022’를 발표했다. 출범 원년부터 지속해서 표준화 작업을 거쳐 온 성과다.

이번 용어 정립을 위해 현역 선수는 물론 PBA 심판진, 당구 경기 해설가 등 PBA 각 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2019년부터 정기적인 회의를 거쳐왔다.

이번 ‘PBA 당구용어 2022’를 통해 발표된 용어는 총 48개다.

우라(뒤돌리기), 하꾸(옆돌리기), 오마(앞돌리기), 빵꾸(날어치기) 등 기술 용어를 비롯해 다마(당구공), 다이(당구대) 등 당구용품 용어 및 경기 용어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거쳤다.

PBA 당구용어는 앞으로 PBA 투어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 사용할 예정이다. 중계 등에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또 PBA 홈페이지 상시 게재, 대한당구장협회와 협력해 전국 주요 당구클럽에도 포스터 형식의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PBA는 당구용어 정리 사업의 첫발을 댄 만큼, 향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지속해서 진행, 올바른 당구용어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광주FC, 베테랑 수비수 김현훈 영입

광주FC가 베테랑 김현훈(사진)으로 수비를 강화했다.

광주는 23일 서울이랜드에서 활약한 수비수 김현훈(30)을 영입했다.

184cm·82kg의 탄탄한 피지컬을 갖춘 김현훈은 진주고-홍익대를 거쳐 2013년 일본 J2리그 제프 유나이티드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 세 시즌 동안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다.

이후 후쿠오카(J1), 리장 자원하오(중국 갑급리그)를 거쳐 2018시즌 경남FC에 입단한 김현훈은 30경기(1골)에 나서 팀의 준우승에 힘을 보탰다.

2019년 경주시민축구단에서 군 복무를 수행한 김현훈은 지난 시즌 서울이랜드 유니폼을 입고 21 경기를 소화했다.

김현훈은 공중볼 장악과 대인마크, 커브 플레이에 강점을 가진 중앙 수비수로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 등 빌드업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공격 전개 시 시발점 역할도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현훈은 “광주는 조직력과 뜨거운 패기가 돋보이는 팀이다. 열정을 가진 팀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고참으로서 더 솔선수범해 팀 승격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언차티드
- 2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 3관 시라노, 안테벨룸, 극장판 주술회전 0
- 4관 언차티드
- 5관 언차티드
- 6관 안테벨룸
- 9관 극장판 주술회전 0, 나이트메어 앨리
- 7관 씨네캐슬 나일 강의 죽음, 광대: 소리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8관 씨네캐슬 해적: 도깨비 깃발, 킹메이커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2022.03.03.(목)-04.(금)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커스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2.03.25.(금)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